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전화** 064-741-2285 발행일 2024, 06, 26, Vol.

ISSN 2671-9754



오름을 보는 것과 오름에서 보는 것 올록볼록한 오름 군락과 너른 들녘, 푸르름이 가득한 풍경이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이토록 수려한 경관을 품은 제주의 오름을 걸어보지 않을 수 없다. 다랑쉬오름 옆에 납작하게 누운 아끈다랑쉬오름은 아담해 보이지만 굼부리 주변에 닿으면 아득한 느낌이 들 정도로 광활한 풍경이 나타나는 오름, 올라야만 알 수 있다. / 송인혁 사진가

제12대 전반기 마지막 회기 마무리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상임위별 주요 현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6월 11일 제12대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428 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 26일까지 열렸다.

이번 제42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이 다뤄졌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줄한 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 변경안 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도개선 건의사 2023회계연도 결산 의안 6건과 각종 을 두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조례안 70여 건을 심의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민 관심을 모 았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가 일부 수정돼 상임위 를 통과했다.

도교육청이 제2부교육감인 정무부 교육감 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교 육위원회에서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 기도 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시 애 월읍 광령리에 들어선 공동주택 단지 진·출입로의 사유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제주영 상문화산업진흥원을 문화콘텐츠진흥

이 밖에도 정례회 기간 농수축경제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주 크루즈 산업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제주항에 입항한 크루즈에 승선해 관계자들과의 간담 회를 가졌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린 이 교통공원과 명도암유스호스텔 밑 제주시청소년야영장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김경학 의장은 "도민의 기대와 성 원 속에 출범한 제12대 의회는 변화 와 혁신을 통해 '더 많은 기회, 더불 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 을 다해왔다"며 "제12대 의회는 이 번 회기를 끝으로 반환점을 맞이한 다. 이번 회기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 검사의견서를 통해 제기한 개선 항에 대해 도정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현장서 답 찾는다"

김경학 의장 행보 계속돼 1차 산업 현장 방문 활발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도민 소통·공감 행보가 이어졌다.

김경학 의장은 지난 6월 18일 의장실에서 제주도 장애인부모 네트워크(대표 박정경) 회원들과 발달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교 육권 확보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증 발달 장애인 권리 중심형 공공일자리 도입 △제주도 특수교육 환경 개 선 △제주도내 특수교육학과 신 설 등을 건의했다.

이튿날인 6월 19일에는 중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창암교육 활동센터와 장애인 직업재활시 설 한라원, 길 직업재활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복지시설 종사자 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6월 21일 김경학 의장의 행보 는 서부지역 1차산업 현장으로 향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어류양식 수협 배합사료 공장과 단호박 재 배 현장, 고산농협 산지유통센터 를 잇따라 방문해 양식사료 및 농산물 유통 관련 시설 운영 상 황과 농작물 생육·유통처리 상황 을 점검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양식어업 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경제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 를 위해 질 좋은 배합사료를 개 발하여 양식어업에 보급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인 행 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 및 판로 확대, 다양한 브랜드 사업화 등 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면안내

? 2

9 3

9 4~5

9 8~9

12

O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월간 「도민광장」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집행부 견제·감시, 본연의 역할 집중 자부"

제428회 제1차 정례회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난 6월 11일 열린 제428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도민의 기대 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12대 의회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 많은 기회, 더 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 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12대 제주특별자 치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 막 회기라고 밝히며, "열정적인 입법 활동으로 일하는 의정상을 만들었고, 집행기관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와 감 시를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불황이 장기화하면 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제12대 전반기 마지막 회기 제428회 정례회 개회사서

"열정적인 입법활동으로 일하는 의정상 정립해"

"건설업계 위기 대응 비상 대책 마련 시급"

"장마철,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주요 건설자 재 가격이 크게 올랐고, 인건비도 오 르면서 공사비가 급등했다"며 "부진 이 길어지다 보니 건설업계는 생존 위 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 경 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대책이 시급하 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정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건설 부문 재정 투자 확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김경학 의장은 또한 "제12대 의회에 서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가 복지 다. 제주대학교병원이 발달장애인 거 점병원으로 지정되었고 행동발달증진 센터가 지난 3월 문을 열었다"며 "공 공형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은 제1차 추경에서 확보돼 곧 신축에 들어간다. 이런 성과가 이뤄지기까지 힘을 모아 주신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

무원들과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 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여름철 관광 시즌을 앞두고 항공권 품귀현상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국내선 항공 좌석난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제주 관광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도민 불 편은 가중되고 있다"며 "도에서는 정 부와 항공업계 설득에 적극 나서는 등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항공 편 부족 해소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 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어 "장마철이 임박 했다. 기상청은 올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강한 호우가 발생하고 태풍 영향 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에 한치의 소홀 함도 없어야 한다. 도민 생명과 재산 을 지키고 재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 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6월 18일 의장실에서 제12대 전반기 의장직을 마무 리하며 마련된 기자회견을 통해 "2년 동안 합심 하여 역량을 결집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사무 처 직원 여러분, 공직자와 기관단체 그리고 따뜻 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마음 을 담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장으 로 선출되면서 다짐한 것이 있다. 45명 의원 모 두가 주인공이 되는 의회를 만들고자 했다"며 "의원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관 리형 의장', 의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는 '조정형 의장' 역할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해 왔 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제12대 의회는 많은 성과 를 거두었다.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 실했고, 협치를 통해 사상 최대의 국비확보와 규 제개혁을 이뤄냈다"면서 "활발한 조례 제·개정과 현안 해결은 물론 소통 창구도 확대했고, 복지 분 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제 막중한 짐을 내려놓고, 다 시 '우리 경학이'로 불리며 도민 여러분과 밀도 있게 만나겠다"며 "제12대 의회가 나머지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충실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전반기 의정 활동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 로 '민생 경제'를 꼽았다.

김경학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며 "그런데도 도민에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민생 경 제 회복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에 마음이 무겁 고 죄송스럽다"고 전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어 "전반기 의정 목표로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표방했다. 복 지 현장 특히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한 곳이 라도 더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왔다"며 "그게 당 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 계신 분 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평의원 신분으로 돌아간다"며 "앞으로 구 좌읍·우도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대학교에 특수교육학과 설치와 관련 해 "최근 제주대 교수회의에서 특수교육학과 설 치에 의견이 모인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 부서에 서 검토가 끝나면 조만간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며 "특수교육학과 교원 확충이 어 렵고 인력 수요가 상당히 많은 만큼 반드시 전문 성을 갖춘 인력들이 제주도에서 배출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슬로건으로 개원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성과를 정리해 본다.

도민 체감하는 현장 공감·소통 의정활동 의미 컸다

민생경제 회복 역점

지난해 3월 민생경제 어려움을 걷어내고 기회를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와 규제혁신 공동 TF팀을 구성했고, 31개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이란 성과를 거뒀다. 이 가운데 자치법규로 개선 가능한 12건에 대해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로 건의한 상태다. 이 같은 공동 전담 조직 운영은 높게 평가돼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와 공동국비확보단을 구성해 국비 예산 절충에 노력을 기울였다. 제주 현안 19개 사업에 대해 667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고, 12개 사업에 대해 213억 원의 국비 추가 확보라는 성과를 올렸다.

견제·감시 역할 충실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에서 23번의 회기 운영을 통해 1600여 건의 의안이 처리됐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심사 등에서 지방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며 일하는 의정상을 구현했다.

의원연구단체를 활성화해 지역 발전과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연구 활동에도 매진했다. 지역 발전과 환경, 도시, 해양, 복지, 문화, 경제 등 13개의 분야 별 연구단체를 운영하며 다양한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역동적인 자치입법 활동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눈길을 끌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주판벤틀리법으로 불리며 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반영되는 우수 모범사례가 됐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의 '제주 특별자치도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 김승준 의원 제주도와 규제혁신 공동TF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성과 거둬

활발한 의원 입법 활동 일하는 의회상 구현

도민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에 집중

(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은 정책시행의 동력이 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에 투입함으로써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이 밖에도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제도적 근 거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수술비·항공료 등을 지 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문화자치 실 천을 위한 조례 제정,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도민에 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별위원회 활동 강화

제12대 전반기에서는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 이 주목받기도 했다.

지난해 30주년을 맞이한 4·3특별위원회는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지속적인 4·3정 담회 개최, 제주4·3정명 도민 인식 조사, 미국 현지 토론회 개최 등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사회보장특별위원회는 사회보장 돌봄체계 사각 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냈다.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에 적극 대응했고, 장애인 고령화 지원방안 연 구, 특수교사 양성 필요성 제기 등 사회보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활동을 펼쳤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의 경우 탄소중립과 탈플라 스틱 제주 실현을 큰 과제로 삼아 CFI2030 정책을 점검하고,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를 위한 탈 플라스틱 정책 및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지하 수 및 용천수 활용을 통한 에너지 다변화 방안 모색 에도 최선을 다했다.

열린 의정활동 실현

제주포럼 의회세션을 통해 공공외교모델 발굴과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글로벌 네트 워크 구축을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4개 특별자치시·도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위한 자치분권 의정박람회를 제주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내소통협력팀을 신설하는가 하면 서귀포시청사에 의정소통실을 설치해 도민들과 직접적인 소통 창구마련에 나섰다.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꾸준한 민생 현장 방문으로 도민 공감·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힘써왔다.

복지정책에 남다른 관심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였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개최한 제주대학교와의 정책간담회에서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지난해 8월 제주대학교병원이 발달장 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됐고,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난 3월 문을 열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결과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인 '북촌스테이'가 지난 6월 13일 개소했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지원센터와 영유아발달지원센터도 개소를 앞두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주 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설치를 강력히 요청해 온 결 과 제주대 교수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데 의견이 모 이는 등 공감대 형성을 끌어냈다.

지방소멸 위기…재정 자주권 확대해야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 동반성장을 위한 '제2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가 지난 5월 29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처음 개최됐 던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 박람회에 이은 것으로 제주와 세종·강 원, 전북이 상호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개회식을 통해 동반성장을 위

제2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5월 29일 세종시서 개최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 상호 협력·발전 방안 논의

한 특별자치시·도의회 공동성명이 발 표됐다.

공동성명에는 △특별법 권한 이양 된 특례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특별 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공 동협력 △특별자치시·도의회 역량 강 화를 위한 인사 및 정보 교류 △특별 자치시·도의회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등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협력 등이 담겨있다.

이어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더불 어민주당, 남원읍)이 참여한 특별자치 시·도의회가 나아갈 방향 및 상호협력 과제 토론회가 진행됐다. 송영훈 위원 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의회 활성 화를 위한 조례 제정 범위 확대, 심의·의결권 확대, 인사권 강화에 대해 중 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하며 특별자치시·도의회 혁신을 도모하는 공동연구·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김경학 의장은 '의장에게 직접 듣는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지방소멸 위기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와 획기적 세제 이양으로 지방의 재정 자주권 확대를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재정 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험할 수 있도록 특별 자치시·도에 대한 국세 이양 및 부담금 설치·운영 특례 신설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경학 의장은 "작년 제주에서 처음 개최한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가 올해 세종 개최로 이어 지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6기 제주도의회 옴부즈맨 성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6월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기 도의회 옴부즈맨 최종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제6기 도의회 음부즈맨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 2년간의 음부즈맨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2년간 음부즈맨활동에 솔선수범한 위원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6기 옴부즈 맨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 러졌다.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 여 작지만,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라며 "비록 임기는 끝나 더라도 지속적으로 제주 발전 과 지역 발전을 위해 관심을 두 고 애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7기 도의회 옴부즈맨은 읍· 면·동별로 추천받은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새롭게 구성된다.

제주도의회-중국 사천성, 우호 관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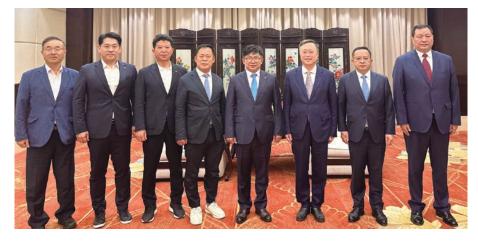
대표단, 6월 3~7일 방문해 "직항 개설, 자매도시 결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이 6월 3일부터 7일까지 중국 사천성을 방문했다. 이번 대표단에는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김대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홍동),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원읍), 한권 4·3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이 함께했다.

6월 4일 중국 사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방문해 평린 부주임을 비롯한 상무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는 것으로 일정이 시작됐다.

면담 자리에서 김경학 의장은 "이번 방문은 사천인민들에게 제주를 알리 고 사천의 하이테크산업을 배우기 위 한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을 이뤄가는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경학 의장은 펑린 부주임의 자매도시 결연과 제주-사천 간 직항 개설 제안에 대해 "양 지역 간 교류 확대는 제주도 원하는 바"라며 "직항



개설에 힘을 함께 모으고 자매도시 결 연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 조했다.

평린 부주임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제주도의회와 사천성 간의 자매도시 결연 등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가 형 성되길 바라며 나아가 시민들 간의 교 류 확대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식 품 가공,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 분야 협력은 물론 문화·관광분야에서도 긴 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길 기 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사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주관으로 청두 하이테크산업 개발구와 한중혁신창업단지를 차례 로 방문해 운영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 을 둘러봤다.

6월 5일에는 코트라(KOTRA) 청두 무역관을 방문해 변용섭 관장을 만나 제주-청두 간 무역 상황에 대해 청취 하고, 제주 특산품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한 업무 협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같은 날 한국관광공사 청두지 사 유한순 지사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청두 홍보사무소 나군 소장과 관계자 들을 만나 제주 관광 홍보와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 대표단은 이어 6월 6일 사 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관 으로 후프 청정에너지 그룹을 방문해 그린수소 관련 산업에 대한 현황을 청 취하고 현장을 살펴봤다.

저출산·고령화····동아시아 공동 대응 기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도 저출생 문 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5월 30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마련된 제19회 제주포럼 의회세션에서 제시됐다. '저 출생 초고령화시대, 복지패러다임 전 환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방안' 주제 로 개최된 이날 의회세션에서 국내·외 지방의회 및 전문가들이 모여 당면 문 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심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저출산, 고령화시대 대응방안' 주제 발표에 나 선 가운데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5월 30일 제주포럼 의회세션 국내·외 의회 및 전문가 초청

동아시아 저출생 문제 직면 교육 자원, 인재 교류 등 필요

아닌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앞당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심 의원은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가

족 구조의 변화,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 회 우뤠이쥔 위원은 '인구 역성장하에 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중국의 방 안'에 대해 발표하며 "동아시아 국가 들은 인구 발전 과정이 유사하고 공통 적으로 인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 면, 국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우뤠이쥔 위원은 "교육 자원 공유, 교육 과정 공동 개발 및 사회보장, 노인 요양, 돌봄 및 기타 전문 인력 양성, 저출산·고령화 공동 연구 강화, 정기적인 포럼 개최 등 교육 협력이 필요하다"며 "과학 기술 연구 개발과 정

기적 교류 및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인재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지난해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이 0.83명, 우리나라는 0.7명으로 저출생은 국가적 위기라 할 정도로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이며, 일본과 중국도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화 추이 도 함께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번 의 회세션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동 아시아가 연대하여 글로벌 협력체계 를 구축해 나가는 지혜의 플랫폼이 되 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6월 27~28일 양일간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김 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와 오순문 서 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 청안에 제출됨에 따라 행정시장청문 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6 명과 의장이 추천한 1명을 포함한 8 명이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위원 으로 선임됐다.

위원장에는 강성의 의원(더불어민 주당, 화북동)이, 부위원장에는 강경 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이름 을 올렸다.

이외에도 강동우(교육의원, 제주시 동부)·김기환(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양용만(국민의힘, 한림읍)·양홍 식(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현지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위 원으로 선임됐다.

인사청문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함에 따라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6월 27일,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6월 28일에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행정 시장인사청문위원장이 제출한 인사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강성의 위원장은 "후보자들의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 행정시장으로부터 적합한지 검증하는 데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의원 후원제도 교육 실시

도의회, 6월 11일 의원 대상 관련 제도 올바른 이해 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6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을 대상으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 한 교육'을 진행했다.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는 지난 2024년 2월 20일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의원 후원 회 설립 및 운영 절차 등 관련 제도 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마련됐 으며,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 위원회 최미경 선거담당관이 강사로 초빙됐다.

최미경 선거담당관은 후원회 설립 절차와 운영 방법, 관련 법적 사항 등을 설명했고 실제 사례를 통해 후 원회 운영의 실무적 측면을 심도 있 게 강의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후원회 제도 의 도입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후원회는 우리의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지만 동시에 엄격한 법적 규제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후원회를 통한 자금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집행률 저조·한시 기구 설치 지적

행정자치위원회

민생 경제 등 관련 부서 90% 미만 집행률 보여 불용 개선책 제시 당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 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는 제428회 정례회에서 도민 삶과 직결된 부서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직개편을 위해 한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고위직 늘리기'라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6월 14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2019~ 2023년 평균 집행률이 89.74%로, 전체 예산 대비

10%는 항상 불용인 것"이라며 "90% 미만 집행률을 보이는 부서가 민생경제, 1차 산업 등 도민 삶의 시급한 정책 영역을 담당하는 부서다.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6월 18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제주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한시 기구 4곳이 설치된다. 반드시 한시 기구로 가야 하는지, 현재 부서로 가도 가능할 것 같다"며 "3급 2개 자리, 4급 2개 자리가 늘어나는데 고위직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 정원이 98명에 인건비 164억, 법정부 담금 44억 원 등 총 208억 원이 소요된다. 더 들여 다보면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대비 제주도의 전체



인건비 비중은 9.35%, 전국 평균 6.84%보다도 높은데 한시 기구 정원까지 늘리면 제주도 인건비 비중이 전국 1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운영 시간 우려



지난 6월 18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주특별자 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 어민주당, 삼양·봉개동)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특 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을 두고 우려가 잇따랐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사업 취지 퇴색 "안돼"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제주는 아직 시행 못 해

서귀포시 대정읍에 설치된 민관협력의원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1년 넘게 방치되면서 제주도가 운영 시간 완화하는 것을 두고,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인근 병원이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한다. 매일 밤 10시에서 8시까지로 진료 시간을줄인다는 것은 결국 2시간을 위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매일 오후 10시까지 진료라는 조건은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

주당, 노형동을)도 "조건을 완화하면서 본질이 퇴색되고 있다. 대안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6월 12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정책을 두고 지적이 제기됐다.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은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제주도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전혀 계획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주 5일 경로당 급식에 찬성하지만, 정책 진행 방향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김경미 위원장은 제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탈락자가 많은 것을 두고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골프장 지원 협약…도민 공감대 형성 우선

📤 환경도시위원회

코로나19 시기 호황에도 지역 사회 상생노력 적어 원수대금 부과 준비도 미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로부터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운영·관리와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받은 가운데, 도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 동)은 "코로나19 시기에 도내 골프장은 전에 없던 호황을 누렸지만 도민 사회 상생 모습은 부족했다" 며 "불황을 겪으면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데, 이 번 협약이 골프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도 "경영난 타개를 위한 일시적인 행보로 보일 수 있다. 도민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6월 17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7월 1일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농업용수 사용량에 따라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고,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원수대금 부과 체계 개선이 지하수의 지속가



능한 이용에 목적을 두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유수 율부터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우도 다회용컵 세척 민간위탁사업에 연간 8 억 원이 투입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공감대 형성 없는 명칭 변경 질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조차 인지 못해" 제주개발사업 특별회계, 문화예술 예산 편성 전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가 제4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문화예술계 홀대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6월 12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법 제160조 제4항 세출규정에' 교육·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위한 자금이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편성된 이력은 전무하다"라고 꼬집었다.

박두화 의원은 "관련 조례에서 세출 기준이 모호하게 돼 있어 제주개

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편성도 문화예술 분야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자부담 문제로 전액 불용 처리 된 민간 경상 보조 행사 관련 예산이 재편성된 것과 관련해 "불용 처리할 거면 추경 직전에 편성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월 13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사전 의견 수렴 없이 명칭변경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 1·2동)은 "기관 명칭 변경이 중요하다면 공감대 형성이 먼저여야 했다"고 질타했으며, 이승아 위원장 역시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상임위 위원들조차 제대로 인지가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원사업 예산 전용 집행 지적



◈ 농수축경제위원회

별도 보고 없이 지원금 변경 예산 편성 산출 오류도 지적 "확보된 국비 집행 노력 부족"

지난 6월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 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 치도가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을 도의회 승인 없이 진행한 것에 대 해 질타가 이어졌다.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은 이날 "고금리대안자금성실상환 지원사업은 당초 5000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최종 지원인원은 2535명이었다"라며 "당초 1인당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계획했지만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지원 금액을 4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상 인

원 산출에 대한 오류가 있었고, 도민 홍보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별도 심의나 보고 없이 담당 부서에서 세부 지급 내역을 변경했다"며 "예산을 전용해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도 "기한 내 신청한 인원 중 지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35명에게도 4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부족 분을 다른 사업에서 전용했다"며 "세 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식이면 예산 편성과 승인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 냐"고 질타했다.

이 밖에도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 당, 일도2동)은 국비 반납액에 대해 "2023년 결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80억 원의 국비를 반납하고 있다" 며 "확보된 국비 집행 노력은 부족하 다"고 지적했다.

"계속비 사업 예산 이월·인건비 불용액 계속 발생"

교육청 조직개편안 도마 위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없어 미래학교추진단 해체도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 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6월 18일 열린 제428회 제1 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정무부교 육감 직제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안 을 놓고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 시 동부)은 "제2부교육감이 없더라도 현재 체제에서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위성이 낮다"며 "조직 슬림 화를 얘기한 것과 다른 행보다. 제주 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현재 교육지원 청에 고교 업무를 이관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 고 지적했다.

김창식 위원장도 "정무부교육감 직 제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찾을 수 없었다.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정이운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은 "본청 공간이 협소한 만큼 정무부교육감을 둔다면 어느 한 부서는 본청 밖으로 나가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승식 의원(교육의원, 서귀포 시 동부)은 계속비 사업 예산 이월과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을 지적하며 "지 난해 계속비 사업 중 미집행이 13건이 나 된다"며 "인건비는 다른 예산에 비 해 추계가 가능한데도 계속적으로 불 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

주시 중부)은 지난해 신설된 '미래학 교추진단'을 해체하는데 대해 "집행부 요청으로 지난해 3년 한시 조직인미래학교추진단이 신설됐다. 잉크가마르기도 전에 해체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병인·간병비 법제화 필요 논의

사회보장특별위원회 5월 30일 국회 방문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 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5월 30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문 대림·고민정·이기헌·부승찬 국 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간병 인·간병비 관련 법제화 필요성 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사회보장특별위 원회가 1년 넘게 추진해 온 간 병인 및 간병 서비스 제도 마련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간병 인 지원 조례 추진 사항 △상위 법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 가 이뤄졌다.

현재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간병인 지원 조례는 '간병인'에 대한 법률상 정의 부재로 인한 직무환경의 열악 함 등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 의 질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현지홍 위원장은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간병비 부담의 완화 및 서비스 질적 개선과 같은 현안 해결이 22대 국회에서 지 속적으로 다뤄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고상돈 기념사업,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 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와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는 지난 6월 2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인의 정신, 고상돈 기념사업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인 최초로 에베 레스트를 등정한 고상돈의 업적을 기 념하고, 그의 도전 정신을 제주도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연결해 미래 세대 에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엄홍길 대장이 '산악인 영웅, 고상돈을 기억하며' 주제 발표에 나섰 으며 강정효 (하고상돈기념사업회 이 사, 변태보 제주특별자치도산악연맹 회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제주 출신 산악인이지만 도 차원에서 고상돈을 기념하고자 했던 노력은부족했다"며 "고상돈의 도전 정신은제주인의불굴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제주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아 위원장은 "제주도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면서 "고상돈 기념사업의 방향성 모색을 비롯한 문화·교육·관광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 모색

환경도시위원회, 포럼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 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 도·이호·도두동)는 제주연구원 제주지 역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현혜경) 와 공동으로 6월 5일 도의회 대회의 실에서 '제2회 지역균형발전 정책포 럼'을 개최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은 인구감소, 지방분권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 여건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제주지역 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 3월 처음 개최됐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지방분 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시 사점을 논의했다.

이날 박기관 상지대학교 교수가 '분

권형 국가로의 전환과 지역혁신의 과제'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 데 이어 이소 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지방 분권형 제주 균형발전정책 추진 방향', 고성일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전문연구원이 '제주지역 균형발전 추진 현황 및 시사점' 주제 발표에 나섰다.

송창권 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지 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지역균 형발전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미래교육 박람회·우수교육 시설 방문

교육위원회, 5월 30~31일 지속가능 미래 견인 사례 확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한 프로젝트와 (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으며, 특히 IB교 서부)는 지난 5월 30~31일 전남 여 사례를 발표해 주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을 받기도 했다.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와 2023년 교육위원회는 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로 선정 를 방문해 교육된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용남고등학 한 공간 구성을 교를 방문했다. 김창식 위원정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참가는 교육이 지역과 국가, 세계와 공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

하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제주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정책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박람회에는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 12곳이 참가해기후 위기와 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와 탐구 사례를 발표했으며, 특히 IB교육을 통한 우수 교육사례를 발표해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기도 했다.

교육위원회는 이어 용남고등학교 를 방문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 한 공간 구성을 살펴봤다.

김창식 위원장은 "이번 연수가 미래 교육 및 글로벌 교육을 위한 제주지역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체육인 복지정책 방향성 정립 필요

5월 30일 관련 토론회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 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 당, 오라동)와 입법지원담당관이 공 동으로 지난 5월 30일 도의회 소회 의실에서 '제주형 체육인 복지정책 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날 체육지도자, 학계 등 전 문가들이 참여해 체육인 복지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재구 중앙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 원 필요성이 제표자로 나서 "지방정부가 도의회 및 들의 생활 안지방체육회 등과 연계해 체육인 관 방안이 활발하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스 다"고 밝혔다.

포츠복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전 담기구 운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승우 전 국가대표 역도감독은 "운 동선수 은퇴 후 고용안정과 현역선 수들의 운동환경도 중요한 체육인 복지"라고 말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 1·2동)은 "체육인 복지정책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승아 위원장은 이날 "제주지역 체육인들의 열악한 복지에 대한 지 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체육인 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이 활발하게 개진되길 기대한 다"고 밝혔다.

지역 활성화 투자 연계 상생 방안 논의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5월 28일 정책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의원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현길호(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지난 5월 28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사업과 연계한 도민 상생 정책사업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활성화 투자 정책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 이 협력하고 주민이 주도해 지역 현 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수 익성을 담보한 지역 활성화 사업방 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길호 공동대표의원은 "최근 정부의 지원 방식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산하기 위해 펀드 출자 등을 통한 민간의 자본과 기술 투자와 연계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공감대 및수용성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다"며 "제주의 경우 정부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도 자체사업 추진 방식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크루즈산업 활성화 기초 연구용역 착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의원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지난 6월 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크루즈산업 활성화기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국내·외 크루즈산업 현황 파악을 위해 세계 크루즈산업 및 아시아 크루즈산업 현황을 조사 하고, 국내 크루즈산업 현실태를 진 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제주 크 루즈산업 관련 조직 업무 분석과 제 주도 여건에 맞는 크루즈산업 활성 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올해 크루즈 관광을 통해 50만명 이상이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제주 크루즈산업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 기업 중심의 면세시장에 집중됨으로 써 지역상권에 미치는 낙수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 크루즈 관광에 따른 문 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을 고양이 보호 방안 공유

강성의 의원, 6월 10일 관계자 정책 간담회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지난 6월 10일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마을 고양이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및 주민과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길고양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마련 방안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안정적으로 고양이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여건마련이 주문됐다.

강성의 의원은 "고양이 급식 소 설치 전 급식 장소 등에 대 한 사전 조사가 이뤄지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한 교 육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단체에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노력을, 도에서는 급식소 설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여정 마무리

1년 8개월 활동결과보고서 승인 미래 환경 위한 활발한 활동 눈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 위원회(위원장 강경문, 국민의힘, 비 례대표) 활동이 마무리됐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제6차 회의를 개최, 활동결과보 고서를 최종 승인하면서 약 1년 8개 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2022년 11월 구성된 미래환 경특별위원회는 'CFI 2030' 정책 추 진을 점검하고 탈플라스틱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 지하수·용천수의 에너 지화 활용 방안 마련 등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을 위해 활발한 활 동을 이어왔다.

마지막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 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428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의 수열에너지 사업 확장 △일회용품 사 용 규제 강화 △친환경적인 대체재 보급 활성화 등 3가지 정책을 제안하 기도 했다.

강경문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지난 1년 8개월간의 모든 여정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제주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형 학교시설 구축·운영 모형 모색

6월 17일 정책간담회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 용담1·2동)은 지난 6월 17일 도의회 소회의 실에서 '제주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운영 모형 모색'주제 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시흥시 관내 학교복합시설 구축 과정과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해 제주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운영 모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주도·도교육청·학교·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제주도와도교육청 간 상생의 원칙 하에학교복합시설 소유권과 운영권에 대한 주체 방안을 협의했다.

김황국 부의장은 "정책간담 회에서 제안한 발전적인 의견 들을 바탕으로 제주형 학교복 합시설 구축과 운영 모형을 추 진해 나가는데 의회에서도 힘 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활 & 법령뉴스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소프트웨어 업체를 운영하는 치열은 2012년, A업체와 원격 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자신이 예전에 개발해 놓았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의 콘텐츠를 제작 해 A업체에 납품했다. 그런데 콘텐츠를 납품받은 A업체의 직원이, 치열 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B사립대학 등에 제공했다.

B대학은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제작해 2014년부터 평생교 육원을 운영했고, 2016년 행선씨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포함한 평생교 육원의 영업권을 넘기게 된다.

뒤늦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치열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무단 복제되어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평생교육원의 새 운 영자인 행선을 상대로 2016년 이후의 프로그램 무단 이용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과연 행선은 치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질까요?



반환해야 한다

과거에 무단 복제 사실을 모를 수 있지만, 지금도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의 영업권을 양수 한 2016년 이후에도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선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 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 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개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할 책 임이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참조). '저작을 이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 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용대가로서 지급 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위 판결은 저작권 무단이용에 관해서는 선의 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부당이득을 반환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행선씨는 치열씨에게 해당 프로그램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신기한 제주어 ③

셈토멕이 웃다

(관용어) 남을 헤아리거나 사리분별하는 능력이 없다

"징심도 굶으멍 보리왓디 검질 문 매어된 집이 와보난 정지에 굿혼 반지 기밥이 짐 무락무락 남선 배고픈 주멍에 호 낭푼일 다 먹어 분 거 아니 우꽈" 어멍이 완 봔 "아이고 이 노릇이여, 이 셈토멕이 웃인 아이야게. 웨하르방 오켄 호연 제위 이신 쏠 혼 줌 서턴 출린 밥 아니가게"

· 징심, 정심, 증심: 점심

· 보리왓디 : 보리밭에

· 검질, 지슴, 지심: 잡초

· 매어둰 : 매 두고

·정지, 정제, 정짓: 부엌

· 굿 : 금방

· 반지기밥 : 보리쌀이나 좁쌀에

입쌀을 섞어 지은 밥

· 짐 : 김

· 무락무락 : 모락모락

남선: 나고 있어서

· 주멍, 지망, 주망: 김

· 낭푼이 : 양푼

· 완 반 : 와서 보고

· 노릇 : 저질러 놓은 일

· ~게(첨사)

웨하르방: 외할아버지

오켄 호연 : 오겠다고 해서

· 제위, 제우 : 겨우

이신: 있는

살 : 쌀

· 서트다, 섞으다, 헊으다 : 섞다

출리다: 차리다

밥 아니가: 밥이잖아

양전형 저「제주어 용례 사전①」중에서



2024. 5. 1.e - 7. 31.e



공모분야 4개 분야

응모자격 누구나

-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 ◎ 도민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 방안
- ◎ 제주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

시상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상 및 상금

각 60만원

각 40만원

※ 시상규모는 응모작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발표 2024. 8. 30.(금)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게재 및 수상자 개별 통보

(마감일 18시 도착분개지 유효)

응모방법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 접수 문의 처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064-741-2339)

-전자우편: hi001379@korea.kr

-등기우편

우)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담당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의료체계가 나아갈 길은"



이 경 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최근 대한민국 전역이 의료대란 의 혼란 속에 휩싸여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와 이에 맞선 전공의 및 의대 교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100일을 넘겼지만, 해결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의료 인프라가 과부하 상태에 이르고, 이를 벗어나기도전에 의사들의 집단 휴진사태까지 겹

옴부즈맨(ombudsman)은 지역의

불편부당한 제도 절차 또는 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발전

지향적인 시책 제안, 지역개발·주민복

지에 관한 개선사항 등을 찾아내 시

우리 사회가 급변하면서 국민의 욕

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으며 각계

정·개선하는 제도이다.

치면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의료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들로 드러난 지역 간 의료 자원의 불균형은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제주 또한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특성으로 인해 제주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제주의 의료는 이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제주의 의료 인프라는 의료 자원의 부족과 의료접근성의 문제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간호인력 유출 문제를 포함해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감염병 전문병원의 부재 등 의료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양한문제 중 필자는 두 가지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제주만의 정책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 다. 예를 들어 의료 인력에게 제주만 의 매력적인 근무 조건과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역 의료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이다. 현재의 의료대란 상황에서도 우리 제주는 민간병원의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때도 유사하게 나타났던 현상이다. 앞으로의 제주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의 협력은 도민들을 포함한 민과 관의 협력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민과 관의 협력을 유지해 나갈수 있는 정책 발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료 인력 확보 및 동네의원, 지역 2차 병원을 중심으로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이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다. 지자체에서 경제적인 보상을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다만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고, 최소한의 체계를 구축해야 위급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할수 있을 것이다.

제주는 의료 인력 확충을 넘어서 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종합적인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제주가 의료체계 구축을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하지만 도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반드시의료체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제주도의회 옴부즈맨 활동을 마무리하며

고 석 준 제주도의회 제6기 옴부즈맨



각층의 이해관계도 대립하고 있다. 또한 행정 권력이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주민 생활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환경 변화는 행정기능을 양적, 질적으로 다양하게 진화시키고 있다. 행정기관의 재량성과 자의성이 확대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주민의 권익이 침해당할 가능성도커지고 있다. 아울러 행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과 계층 간화합에도 장애요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옴부즈맨 제도의 탄생 배경도 여기

에 있다. 음부즈맨은 행정기관의 독주를 막고, 침해받는 국민의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는 일종의 국민의 민의구제제도인 것이다.

제주도의회 제6기 옴부즈맨은 20 22년 9월 6일 위촉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확인하고 생생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6기 옴부즈맨은 지금까지모두 65건의 생활 민원을 해결한 성과를 거뒀다.

옴부즈맨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도 겪었다. 옴부즈맨 활동을 위해 기관 을 방문해도 옴부즈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활동에 제약이 따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 자는 옴부즈맨 증명서 발급을 제안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 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를 개 정해 옴부즈맨 증명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옴부즈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확인해 도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구 성될 제7기 옴부즈맨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6기 옴부즈맨 활동 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노인학대, 주변의 관심으로 예방 가능

오 하 나 제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럼 매해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 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 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를 비롯해 친족이 대 다수를 차지하고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학대 피해가 쉽게 묵인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 어 주변에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절 실히 필요하다.

이번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경찰에서는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있다. 특히 이 기간 중 학대예방경찰관(APO)은 관내 사례관리 중인 학대우려 노인 대상 재학대 방지를 위해추가 피해와 보호·지원에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

업해 복지시설 방문 합동 점검을 실시, 입소자·시설주·종사자 대상 면담을 통해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 인지 시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한다.

누구나 세월이 흘러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노인학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더이상 학대받는 노인이 발생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2024년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인 고령인구 비율이 19.2%를 차지하 는 고령사회이다. 이전 비율은 2023 년 18.2%, 2022년 17.4%이다. 이처

김녕중·제주중앙여고,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 '최우수'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에서 중등부 김녕중학교, 고등부 제주 중앙여자고등학교가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5월 3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에는 도내 중등부 6개팀·42명과 고등부 6개팀·42명이 참가했다.

이날 참가 학생들은 학교 교육·청소 년 또는 제주 현안에 대해 스스로 의 제를 선정하고 시나리오 작성, 심사 보고, 찬반토론, 의결, 5분자유발언 등 직접 본회의 진행에 나섰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중등부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한 김녕중학교는 '한라 5월 31일 본회의장서 경연 12개 중·고등학교 참여해

현안 의제 선정 본회의 진행 수상자 해외 연수 기회 제공

산 케이블카 설치 입법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고등부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한 제주중앙여자고등학 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수학교 추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건의안'을 의제 로 다뤘다. 또한 개인 최우수상에 중등부 △제주여자중학교 김하민(의장역) △김녕중학교 현주혁(의원역) △김녕중학교 양지호(5분자유발언 의원역), 고등부△제주외국어고등학교 전시연(의장역) △제주제일고등학교 김민재(의원역)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손수혁(5분자유발언 의원역) 학생이 이름을 올렸다.

수상 대상자 중 최우수·우수 단체상 수상자와 지도교사, 최우수 개인상 수 상자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한 해외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김경학 의장은 "민의의 전당에서 직접 의원 역할을 해보는 경험이 토대가

되어 지방자치를 끌어나갈 차세대 지역사회 리더로 힘차게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중등부 단 체상 △우수 제주중학교 △장려 제주 서중학교·오현중학교. ▲고등부 단체 상 △우수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장 려 제주제일고등학교·제주여자고등학 교. ▲중등부 개인상 △우수 제주중학 교 현지호(의장역), 오현중학교 현유 준·김녕중학교 김준우·서귀포중학교 이정우(의원역), 제주중학교 조호재(5 분자유발언 의원역) △장려 제주서중 학교 정비치(5분자유발언 의원역). ▲ 고등부 개인상 △우수 한림고등학교 박소은(의장역), 제주여자고등학교 최 다연·신성여자고등학교 김서윤·제주 중앙여자고등학교 김민서(의원역), 제 주여자고등학교 문은빈(5분자유발언 의원역) △장려 제주중앙여자고등학 교 김서은(5분자유발언 의원역). ▲지 도교사상 이은미(김녕중학교), 김다래 (제주중학교), 조지은(제주서중학교), 김수홍(오현중학교), 김잔디(제주중앙 여자고등학교), 정민우(제주외국어고 등학교), 송은경(제주제일고등학교), 양용준(제주여자고등학교).

도민 체감도 높은 의원 입법 활동 눈길

저출산,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 문제 해결 실마리 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7회 임 시회에서 다뤄진 저출산, 디지털성 범죄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입법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열 린 제427회 임시회에서는 10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이 뤄졌다.

특히 저출산, 디지털성범죄 등 최 근 심각해지는 사회 문제 해결과 중 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 리 강화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 내용으로 한 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한 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는 한방난임 치료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난임부 부에 대한 심리·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출산에 대한 유리한 환경을 조 성하고자 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 2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 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 죄 예방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성범 죄로부터 공중화장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시스템 설치, 상시점검체계 및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 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는 안전시설 정비·확충, 안전관리 요원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 및 지원 체계 확립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산업현장 안전관리 강화,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자활사업 지원, 산림사업 대행자에 대한 수수료 기준 신설,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활동이 이뤄졌다.

남광초, 청소년 의정체험 참여

남광초등학교 학생들이 '1일' 도의 원으로 변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5월 29일 본회의장에서 남광초등학교 전 교어린이회 학생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1일 의정 체험의 장을 진행했다.

참여 학생들은 각자 맡은 도의원 역할에 따라 심사보고와 도정·교육 행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 찬반토론 및 전자표결, 3분 자유 발언 등의 의 사진행을 직접 진행했다. 특히 3분 자유발언에서는 '학교 급식 잔반 줄이기'와 '청소년 폐쇄 장소 이용'에 대한 주제로 관심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본회의 장을 찾은 김창식 교육위원장(교육 의원, 제주시 서부)은 "오늘 의정체 험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작은 씨앗 이 되어 앞으로 제주 미래를 이끄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6월 공감·소통의 날 '감동 가득'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6월 1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글빛소리 시니어여성합 창단을 초청해 6월 공감·소통의 날을 진행했다.

제주글빛소리 시니어여성합창단은

이날 공연에서 노년의 지혜와 경험 이 담긴 노래를 부르며 참석자들에 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실버합창 단의 공연이 마음에 깊은 울림이 주 었다"며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호평했다.